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6년도 제26차 회의

1. 일 자 2006년 12월 21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강 문 수 위 원
이 덕 훈 위 원
이 성 남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심 훈 위 원
박 봉 흠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박 재 환 부총재보
김 수 명 부총재보 이 영 군 부총재보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정 해 왕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이 주 열 정책기획국장 장 병 화 금융시장국장
이 광 주 국제국장 정 이 모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장 세 근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48호 - 2007년 1/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 정비에 따른 지원소요 감소 등을 반영하여 2007년 1/4분기 총액한도 대출의 한도를 2006년 4/4분기

보다 1조 6,000억원 줄어든 8조원으로 정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대출정책 정상화 측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총액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가용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본부별 한도도 점차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총액한도대출 한도 감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감축이 대기업 수혜분 제외 및 실효성 낮은 자금 정비에 따른 것이라는 점, 지역본부별 한도 증액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 증대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앞의 일부 위원은 관련부서에 대해 금번 총액한도대출 한도 감축으로 인해 당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7년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8조원으로 정한다.

<의안 제49호 - 2007년 1/4분기 한국은행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 결정>

(1)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도 1/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2006년 4/4분기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 설명을 하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07년도 1/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조절대출 한도를 5조원으로 정한다.